

제목: 하늘의 설계도를 따른 봉사 (2)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2절: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단은 십자가의 예표이고, 향은 우리의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봉사를 상징합니다. 다른 불은 십자가로 처리되지도 않고 부활 안에도 있지 않은 열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십자가의 제단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좋고 계획이 좋고 뜻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을지라도 '다른 불'에서 나온 모든 사역은 장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 여긴 사울

사무엘상, 하의 구성을 보면,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린 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첫째로는 백성들의 흩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둘째로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12절: [11] ... 블레셋 사람은 므깃도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셋째로는 그들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므깃도에 진을 치고 길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암몬 족속을 정복하는데, 여기를 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전혀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40세가 되어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때부터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12절: [11]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뢰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뢰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보면, 밀 베는 때인 4월에서 6월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뢰와 엄청난 비를 내리십니다. 건조기에 비가 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후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 여기면서 하는 일이 후에도 연결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7-24절: [7]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도다 [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 여호와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4]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 이니이다

이 후에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6 장 13-14 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 장 22-23 절: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대 하니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직 영 안에서 살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고의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는 원칙상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2 장 42 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원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려한 웃시아 왕
역대하 26 장 16 절에서 21 절까지에서는, 웃시아 왕이 자기 뜻대로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6 장 40 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6 장 16 절: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웃시아 왕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어 그의 이마에 문둥병을 발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영적 의미는 바로 더러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없이 망령되어 행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범한 자라는 걸 뜻합니다.**

언약궤를 붙든 웃사

사무엘하 6 장 1-7 절: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호는 궤 앞에서 가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싣고 올 때, 소가 뛰자 웃사가 언약궤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웃사를 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웃사가 언약궤를 붙든 것은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돕는 것 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없더라도 반드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 장 5 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설계도를 아는 것입니다.** 2021 년도는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 장 28 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교회 건축**입니다. 주님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인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주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9 편 13 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대

고범죄 *하: ττ 제드 = 주제넘은, 교만한, 건만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불순종의 죄이고, 두번째는 고범죄(주제넘은 짓을 하는 죄)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인 것은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주제넘은 것 또한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제넘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원하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의 가치는 그 일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합했느냐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 장 17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진실로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자기 속에서 생각해 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은 성경이 문자로 가리킬 뿐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깊은 영 안에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은 일이면 무엇이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고범죄임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일의 가치는 그 일이 크나 작으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느냐에 있습니다.

민수기 15 장 32-36: [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3]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을 때 모세는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 그러한 사람을 처리하는 길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시행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한발 한발 나아갈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일은 급히 행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면 빨리 도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 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에 파송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아시아에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가를 따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지시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아시아에 무언가 필요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원함이 없는데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그분의 명령을 듣고 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 장 13 절: [13]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 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눠 주신 분량 밖의 한계에 미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지 않은 지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맡기신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 지우시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다 지나쳐 책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나눠 주신 분량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에 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어떤 봉사나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위치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건물 안에서는 큰 기둥도 중요하지만 작은 못 또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고 팀장이 되고 머리가 되려한다면 교회가 잘 건축될까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위치에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잠히 작은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 재능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 장 7-8 절: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모두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이 길을 찾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다른 사도들을 인도하신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원함대로 일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자유롭게 못합니다. 만일 자유를 원하여 자기의 길을 간다면, 더 실패하고 더 고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갈지라도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 물고기가 니스웨로 도로 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일만을 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 만을 가고, 자기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워싱턴베다니교회의 중대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환경의 필요를 따라, 도움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워싱턴베다니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쓸모 있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지시하신 식양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고, 그 식양을 따라 만들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설계하신 계획대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2021 년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늘에 설계도를 따른 봉사를 하는 지혜로운 워싱턴베다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